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일상화한 오체투지 등 생활이 곧 수행

진실·무욕의 삶에 인류 '감동'

육바라밀의 실천 티베트



티베트 불교의 힘은 훌륭한 스승과 엄격한 교육에서 비롯됐다. 인도 다람살라의 사원에서 독경중인 티베트 학인 스승들.

지구촌에는 큰 나라들이 많지만 불교가 전파된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향인 인도와 옛 중국과 같은 큰 대륙에 불교는 거의 없어진 상태이다.

1959년 중국의 침략으로 인해 망명한 일부 티베트 사람들이 인도의 불교를 되살리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파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티베트는 7세기 때부터 불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불교는 오늘날까지 티베트 사람들에게 문화이자 생명처럼 자리 잡고 있다. 부처님 말씀대로 티베트에서 불교는 분인이 잘 배우고, 살피고, 실천하고 충분한 경험을 쌓은 것을 바탕으로 남을 가르치거나 봉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티베트의 불교는 그 자체가 바로 티베트의 문화이다.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생활은 그 자체가 곧 불법의 실천이다. 예를 들자면 얘기가 태어나서 이름을 지을 때조차도 티베트인들은 스승들에게 의지하여 아이의 성을 지으며, 성도 아버지 성을 따르지 않고 스승의 성을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티베트 사람들은 스승 찾는 것을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며 스승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도 절대적이다. 그래서 스승들을 살아있는 부처로 생각한다.

그분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불교의 인과에 바탕을 둔 보리심에 대한 실천이다. 인과에 대한 믿음은 거의 절대적이어서 티베트에서는 육 조차도 '인과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모욕적인 욕심이다. 이렇게 인과를 믿는 티베트 사람들은 현생보다는 내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로 이번 생에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평등한 마음가짐, 일체 중생들을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자비심 등의 보리심 공부를 바탕으로 육바라밀의 실천을 행하는 것이다.

현재 티베트의 인구는 60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티베트 불교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은 그 배가 훨씬 넘는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직접 티베트에서 스승을 찾기 위해 유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

다. 그 이유는 전에 그들이 티베트를 여행하다가 자기 나라와 비교할 때 사람이 못살 정도의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불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에 살고 있는 티베트인들이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한 호기심을 갖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티베트 불교가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위대한 힘은 지식이나 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는 티베트의 스승들이 자기가 실천한 내용만을 남에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불교의 위대한 힘은 불자들의 옷차림이나 지식이나 말로써가 아니라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데 있다. 즉 인과를 바탕으로 한 일상생활 속에서 욕심이나 시기심, 자만심 등을 줄이게 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전제적으로 배우지 못하면,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공양 올리는 등을 완전히 깨닫기 위해 보리심으로 하지 않고, 이기심으로 무명장수, 사업성취에만 집착해서 하게 된다. 이는 마치 병에 걸려서 약국이나 병원에 찾아가서 그 병이 완전하게 나을 수 있는 약을 지어달라고 하지 않고, 마취제만 맞고 돌아오는 것과 같다.

수행이라는 것은 번뇌의 치료제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참선할 때, 자기 한테 있는 번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살펴야 한다. 번뇌가 줄어든다면 이번 생의 일뿐만 아니라 결핍 없이 남에게 베풀 수가 있어서 늘 행복할 수 있다.

달라이 라마께서 한 번 미국에 방문하셨을 때, 어느 기자가 질문하기를 "요즘 중국의 장쩌민 때문에 고생이 많죠. 힘들지요?"라고 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성하게서는 "중국의 장쩌민 하고 우리 두 사람의 얼굴을 보고 누가 더 힘들지 알 수 없느냐?"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이러한 차이점은 누가 더 번뇌를 많이 품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초불 스님(부산 광성사 주지)



프랑스 불교는 베트남 출신의 틱낫한 스님(가운데)에 의해 유럽 불교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불교 수행자인 플럼빌리지의 여 수행자들.

중·상류층 윤회와 명상에 매혹

프랑스는 1970년대에 불교 수행센터와 불자 공동체를 조직하여 운영하기 시작함으로써 불교 신행다운 신행을 보여준 유럽의 첫 번째 국가이다. 이러한 불교 운동의 시작이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진 것은 1980년대 몇몇 언론사의 기자들에 의해서였다. 프랑스불교연합에 따르면 그 당시 프랑스에서만 15만 명의 사람들이 불교로 개종했다고 하며 15년 후인 1997년의 여론조사에는 약 5백만 명의 프랑스인들이 불교에 대해 깊은 관심과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날 프랑스에는 70만 명의 불자와 60개의 불교센터가 존재하여 숫자로 국가의 네 번째 종교가 되었으며, 불교에 호감과 애정을 가진 프랑스인들도 무려 2백만 명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의 학자들과 지식인들이 19세기 이후로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중 하나이다.

불교의 매력은 18세기 볼테르나 몽테스키외와 같은 계몽주의 철학자들에게 의해 시작된 동양에 대한 관심이 화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불교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19세기에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시작되었지만,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교 경전을 번역하여 불교를 학문으로 다룰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진 에른스트 헤르만(1801-1852)과 같은 프랑스인 불교학자들의 연구가 다른 유럽 국가들의 불교 발전에 중요한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불교의 여러 종파 중에서도 대승불교는 프랑스인들이 불교로 개종한 첫 번째 종파였기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유명한 여성 여행가 알렉산드라 데이비트 닐은 티베트를 여행한 후, 티베트와 티베트 불교의 신비로운 이미지를 소개함으로써 프랑스 내 불교에 대한 깊은 인식을 심어주었다. 선(禪)과 티베트 불교는 항상 프랑스인들의 마음에 강력한 매력을 가진 종교로 인식된다. 일본 선불교의 다이센 데시네루와 베트남 접현종(임제종)의 한 유파의 틱낫한 선사,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 라마나 칼라 린포체와 같은 불교 지도자들이 프랑스에 소개되면서 불교의 인기가 한층 더 해지게 되었다. 한국 조계종의 승산 스님 또한 서양에 살

면서 불교를 가르친 최초의 한국인으로, 프랑스 파리에 관음선원을 설립함으로써 불교 전파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선(禪)과 티베트 불교는 프랑스에 소개된 지 얼마 안 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큰 발전과 행장을 이루고 있다. 오늘날 자신이 불자라고 생각하는 프랑스인들의 80%가 이 두 종파에 속해있다. 1972년 한 작고 허름한 곳에서 시작된 불교센터가 지금은 무려 150개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프랑스인들이 불교에 깊이 빠져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프랑스인들이 현실 세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엄격하고 교리 중심적인 다른 종교들을 기피하는 데에서 이 유를 찾을 수 있다.

불교는 개인들에게 깊은 정신적 여유를 주고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을 준다. 인연에 관한 '카르마(업)'라는 개념과 윤회사상 또한 죽음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서구사회 속 프랑스인들을 매혹시켰음에 분명하다. 한편 기독교의 한 부분이었던 지금도 많이 잊혀진 명상에 토대를 둔 철학에 향수를 느끼고, 이를 재도입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주로 중, 상류층에 해당된다. 그들은 주로 기독교나 유대교 또는 무신론에 현혹되었다가 형이상학적이고 초자연적인 삶에 대한 호기심과 그것에 대한 답을 찾자 불교에 발을 들여놓는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프랑스인 불교 신도들에게 있어서 불교가 마음의 평정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해결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유럽 내에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쓰는 국가들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있고 완벽하게 가르치기 위해 1995년 파리에 유럽불교대학(European Buddhist University)이 설립되었다. 이 대학은 2년간의 과정 동안 불자들이 만나서 불교 교리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생각을 교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부처님의 말씀을 심도 있게 교육시킨다. 프랑스에서 새롭게 꽃핀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제 국경을 넘어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일행 베르디에(여행가, 자유기고가)

유럽 불교 중심의 중심 프랑스

1970년대 수행센터 첫 선

엄격한 교리중심 종교 탈피 마음의 평화와 행복 추구

1995년 유럽불교대학 설립



1 석가모니괘불님 140×270cm



2 석가모니열반도 63×161cm

부처님의 향기를 가까이 !!

대중평화옹 재물님과 가정에서 모실 수 있는 소품 불화까지 실비 염가로 조성봉안하여 드립니다.

불기 2548년 5월 고려미술 대표 불모 죽당 조중일 함장



3 용상자모관음도 53×133cm



4 운상관음도 53×133cm



5 관음도 43×90cm



6 맹호도 53×133cm



7 불심 53×133cm

고려미술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12-5 전화 02)489-1480 / 팩스 02)478-1480

E-mail : yeagiart@hanmir.com 핸드폰 011-376-1480

※ 색상이 변하지 않고 방수처리 특수 제작하였고, 괘불 대는 조립해체가 간편하게 제작하였습니다.